

# 윤석열 대통령,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네덜란드 ASML社 회장(CEO) 접견

윤석열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회장 접견..반도체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7월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CEO)을 접견했다.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 장비업체인 ASML社는 '22년 1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ASML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조성 위한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총 클러스터는 약 2,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미세 공정 및 트레이닝센터 등을 갖추고 '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오늘 접견에서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ASML社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첨단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장비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협력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 클러스터가 향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ASML社 간 협업을 강화하는 중심지가 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앞서 대통령은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그간 3차례 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의



이상적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ASML社가 기존 투자에 이어 한국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양국 반도체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닝크 회장은 작년 11월 착공한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고객사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와 한국의 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홍보차처(브로슈어)를 베닝크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최대

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므로, 책자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 투자 검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특허청,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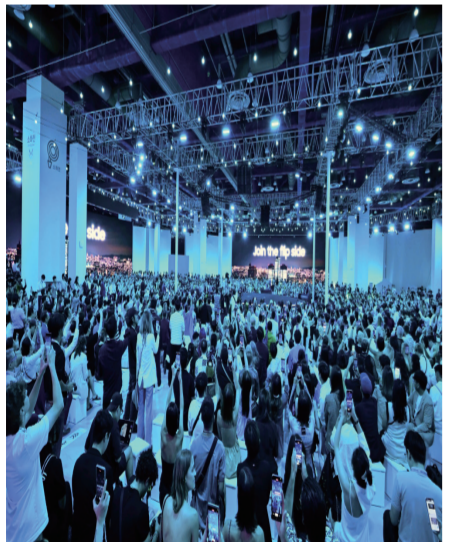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갤럭시 언팩 2023] 서울에서 만나는 '갤럭시 언팩' 현장 속으로



삼성전자가 26일(한국 시간)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탭 S9' 시리즈, '갤럭시 워치6·워치6 클래식'을 선보였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고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을 이끄는 서울에서 신제품을 공개한 첫 행사인 만큼, 전세계 소비자와 국내외 미디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기조 연설을 통해 행사의 서막을 올린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모바일 기술은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진다"며 "오늘 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미래를 소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최신기술과 혁신적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는 다양한 신제품 발표가 뒤따랐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의 열정과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갤럭시 언팩 2023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맞춤형 폴더블 경험을 선사하는 '갤럭시 Z 플립5'



수 있는 카메라 촬영에 대해 소개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크기는 콤팩트하게, 활용도는 풍부하게!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Z 플립5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크기에 넓어진 커버 스크린으로 사용성이 더욱 확장됐다. 플렉스 윈도우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날씨, 주식시장 정보, 미디어 재생까지 많은 것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폰을 접은 상태 그대로 폰을 꺼내 펼치지 않고도 원하는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장인 정신에 기반한 힌지 기술

위해 새로운 '플렉스 힌지(Flex Hinge)'를 개발해 더욱 가볍고 콤팩트한 폼 팩터를 선보인 동시에 내구성을 강화했다. 대화면으로 누리는 강력한 멀티태스킹, '갤럭시 Z 폴드5'

폴더블 시리즈 Z 폴드5에 이어 갤럭시 Z 폴드5를 공개한 순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역대 갤럭시 Z 폴드 중 가장 얇고 가벼운 갤럭시 Z 폴드5는 더욱 강력해진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돌아왔다. 업무와 생활의 경계가 사라진 요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PC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궁극의 모바일 경험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감쪽 등장해 삼성전자만이 갖는 특별한 폴더블 경험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며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갤럭시 Z 폴드5만이 갖는 특별한

폴더블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생산성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갤럭시 워치6, 향상된 수면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발표가 끝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수면에 초점을 맞춘 '갤럭시 워치6·워치6 클래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면 모니터링 기술은 기존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제공했지만 삼성 메디컬 센터를 비롯한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 협력하여 수면에 관한 더욱 종합적이면서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태블릿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갤럭시 탭 S9' 시리즈

언팩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주인공은 '갤럭시 탭 S9' 시리즈였다. 압도적인 디스플레이를 내세운 제품 소개 영상부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엔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고성능 기능으로 프리미엄 태블릿 경험을 선사하고 탭S 시리즈 최초로 방수·방진이 적용된 제품으로 어디서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품의 패키지 박스부터 내부 부품까지 제품 생산 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친환경적 소재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번 언팩에서 공개한 갤럭시 Z 플립5와 Z 폴드5는 이전 갤럭시 Z 시리즈보다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약속하는 MX 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의 끝 인사로 갤럭시 언팩 2023이 막을 내렸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관객들은 뒤이어 이날 공개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향해 이동했다.

체험관은 크게 갤럭시의 다양한 신제품을 전시한 공간과 한옥을 콘셉트로 한 포토존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간 디자인은 <오징어 게임> 채경선 아티렉터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보여주어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시현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2,0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3.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 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

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 → 동물위생연구 → 동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에 제작하여 배포한 항생제 처방 지침 및 홍보·교육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문화매일  
하계휴가 8월/2일~8월/6일

#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 김정옥 의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1일(월),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교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



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 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정옥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

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비본질적 업무인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데 아니라 결국에는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 노들섬에서 미래의 아이돌 스타 공연 격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된 ‘2023-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에 참석하여 미래의 아이돌 스타들을 격려했다.

서울 케이팝 런웨이 SEOUL KPOP RUN WAY(SKRW)는 케이팝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행사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9세에서 19세까지 춤과 워킹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선발하고 50여 명을 댄스컬 런웨이, 런웨

이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세심한 트레이닝 후 개최된 공연이다.

팀은 ▲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기존 아이돌 스타들의 커버 공연인 K-pop Cover Team Group Runway ▲ K-pop dance walking runway ▲ K-Pop Styling Walking Runway 형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1부 마지막 부분에는 참가자 전원 개인별로 활기찬 런웨이와 함께 간단한 본인 소개 과정이 있었다.

이날 공연을 선보인 미래 아이돌 스타들은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 참가했다고 했고, 추구, 야구,

댄스, 무용, 발레, 워킹 등 본인이 가진 다양한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전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강렬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에 나가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무척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고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하며 “이 자리 미래 아이돌 스타들의 열정과 꿈이 세계적으로 펼쳐져 열매를 맺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최광수/기자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반영한 조례 정비 단계적 추진 성과 가시화

## 제346회 임시회 185건 조례 일괄개정 통해 조례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충남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46회 임시회에서 185건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하여 379건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이를 기초로 단계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정비방안이란 개선이 필요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정보(법령데이터)를 최적화하고 ▲2단계는 도민의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문장, 체계 등을 일괄 정비하고 ▲3단계는 개

별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문화된 조례 폐지, 나아가 조례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단계적 정비방안은 도의회 입법평가팀이 중심이 되어 전문위원실,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와 간담회 등 상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기반한 정비 추진으로 그동안 법령데이터 128건 개선, 조례 80건을 개별로 정비했고,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185건 조례를 일괄로 개정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3단계 정비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입법평가에 기반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보다 쉽게 다가가고 도민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근/기자



## 일하여 섬기는 의회



청송군의회 신청사

# 군민과 하나 되는 청송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청송군의회

Cheongsong Gun Council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은 31일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벤치마킹은 성남시와 안양시 등 청년창업 지원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스타트업캠퍼스’와 ‘안양창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은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방성한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 의원들과 창업보육 및 네트워킹 운영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의 모범사례인 안양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 내 코워킹 스페이스인 ‘동안 청년오피스’를 살펴봤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눈높이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영웅 대표는 “청년창업은 늘고 있지만 기술창업 비율은 줄고 있는 것이 청년창업 생태계의 현주소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이다”고 말했다.

기주옥 간사는 “그동안 활발한 청년창



업 지원이 있었음에도 실제 청년층의 창업 생존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송파구, 취약계층 아동 가족 100명과 함께 어린이 문화공연 관람 '심쿵데이' 개최

7월 28일 '석촌호수 아뜰리'에서 ▲공연관람 ▲사진촬영 ▲가족의식 신나는 하루 선물

송파구는 지난 7월 28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100명을 초청하여, 제 7회 '심쿵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상황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석촌호수에 위치한 '석촌호수 아뜰리'에서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소통하며, 아동의 문화 감수성 발달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사운드 셔커스' 가족음악극 공연 관람 ▲전문 사진작가가 진행하는 아동 프로필 촬영 체험 ▲가족 의식 식사권 및 선물꾸러미 제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드림스타트 가족과 관람한 공연 ▲'사운드 셔커스'는 폐기를 악기를 연주하여 마임, 퍼포먼스, 뮤지컬, 버블쇼, 탭댄스 등을 활용한 음악극과 코메디가 합쳐진 가족음악극이다. 폐기를 악기라는 참신한 소재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또한 구는 ▲아동 프로필 사진 촬영 체험을 통해 사진과 액자를 제공하고 ▲전

국 2,000여개 의식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 식사권(1인당 3만원)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신나는 공연도 보고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심쿵데이'는 (주)본에코, (주)초록숲, 방산산업(주), 미도정업(주), 오투환경(주) 5개 업체의 후원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문화-정서적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지원을 위해 매년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시는 관내 환경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 확대해 아동부터 가족까지 소외된 없이 모두가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바가지요금 발뽀붙이게 한다-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점검

### 명동 합동 특별점검(7.31~8.11) 시작으로 7개 관광특구 전체로 점검 확대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 논란이 되자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중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트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이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

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7.31(월)부터 8.11(금)까지 2주간이며,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병행해 불법양도, 대여 등 제3차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서울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고, 동시다발적 점검에 나선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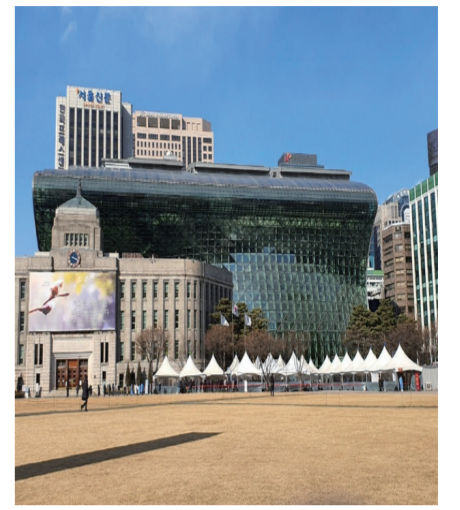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을 중

심으로 수시 단속하며, 관광특구 내 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법 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광특구 평가항목에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특구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한,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거



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최대 5천만원 보장

등록장애인 전체 6000여명 대상 횡수 제한 없이 대인·대물사고 모두 포함...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한도 보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 구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에 8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구민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0여명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

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횡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나들이 즐기고, 환경도 살리고...영등포구, 모바일 앱과 손잡고 '관광 플로깅' 운영

#### 8월 20일까지 6개 공원, 12개 지점에서 이색적인 관광플로깅 운영

서울시 유일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관광플로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구는 8월 중순까지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프로그램인 '영등포구 관광플로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부터 대중성이 높은 모바일 앱(캐시워크)과 연계해 도보 관광 스탬프투어와 관광 홍보 채널을 운영, 영등포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나들이 관광,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모바일 앱(캐시워크)과 다시 손잡고 '영등포구 관광플로



깅'을 이어간다.

운영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 대표 공원인 ▲여의도공원(자연생태의숲·세종대왕동산)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분수·잔디마당) ▲양화한강공원(수변모래일

광욕장·양화안센터) ▲여의도셋강생태공원(버들광장·생태연못) ▲영등포공원(담금숲·영등포문화원) ▲선유도공원(선유도전망대·환경물놀이터)으로 총 6개 공원, 12개 지점이다.

'영등포구 관광플로깅'은 관광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가 ▲6개 공원 내 1개 지점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받으면 1인당 1회에 한해 캐시워크 상품권 3천 원(선착순 5천 명)이 증정된다. ▲모바일 앱 내 게시판에 플로깅 인증 사진을 게시한 경우는 백만 원 상당의 캐시가 행사 종료 후 참여자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된다.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지역 관광과 플로깅 활동이 접목된 관광 플로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영등포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선도적인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2023. 8. 8. (화) ~ 8. 11. (금)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울릉군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 대구광역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7월 말 ~ 9월 중순, 대구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

대구광역시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인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m²)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으로 계곡, 하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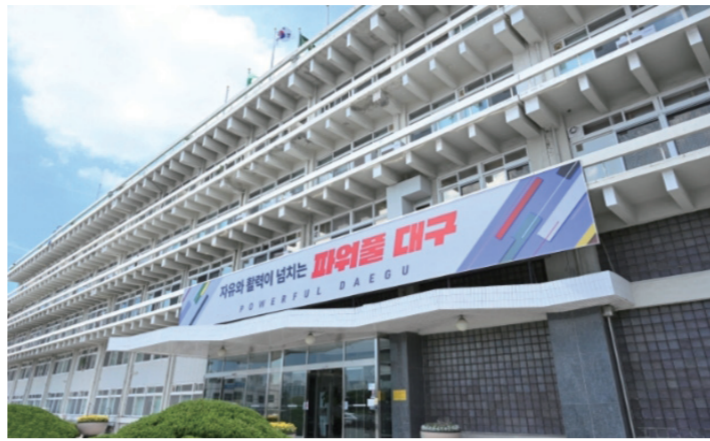
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군위군이 새롭게 대구시로 편입돼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장재욱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



윤근수/기자

# 종로구, 내달부터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불법 행위 근절 총력

종로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업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구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관련 위법행위 신고·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을 위해 관광과 및 안전도시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와 성인PC방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사행성 행위 처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달부터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이 있

다.

구는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종로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여러 이행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7월 말에서 8월까지, 주거밀집지역·민원 다발 지역 등

광양시는 장마가 끝난 7월 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7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전 계도를 진행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47대와 사업용 여객자동차 8대에 차량 이동 안내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번 단속부터는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정문(원정팀 출입구) 앞 대로변,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 제철복지회 백운산 수련관(제2관) 방향 곡선 도로 등의 장소를 단속 대상 구역에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최근 들어 건의 밤샘주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정기적인 단속 외에도 '즉시 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량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광영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에서 상습 밤샘주차 차량 수가 줄어든 것은 즉시단속제 적용 이후 나타난 성과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 운수중상자에게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이동 주차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준/기자



# 화순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화순군은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 활동을 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PC방, 음식점과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통학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주유소 등이다.

단속팀은 금연 구역을 돌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 전북특사경, 지역관광단지 내 음식점 집중단속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최하는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맞아 도내 지역관광단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관광단지 내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 등 7개 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다.

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가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윤동욱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동안 야영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전라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제보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gun #육지안익섬 #뽕뽕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g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g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g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복지 현장 간담회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병희)가 지난 27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진)와 공동 주관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50여 명의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병희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감사드리며 향후 복지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소통을 통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가



### 시흥시 능곡동 주민자치회, 2023년 제2회 능곡동 주민총회 개최

능곡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8월 19일 능곡마을센터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3년 제2회 능곡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능곡동 주민자치회는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공공성, 실효성 있는 생활 의제를 생각하고 발굴해 냈다. 발굴된 자치계획사업 12건을 주민총회에서 공개한다. 주민들은 꼭 시행했으면 하는 3건의 자치계획을 투표해, 투표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투표는 능곡동에 거주 등록이 돼 있거나 능곡동에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QR코드 스캔을 통해 24시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투표(7월 24일~8월 18일)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능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진행된다. 어린이발레, 기타, 건강 기체조, 영어 회화, 사물놀이, 데이터 댄스 등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평소 갖고 있던 작품을 선보이고, 참여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이관섭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결정된 마을 의제 사업이 실행돼 능곡동이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가

### 용인특례시, 재난안전체계 강화...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상황 관리 일원화



용인특례시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체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재난상황 관리창구를 일원화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상급 기관, 각 부서 및 읍·면·동, 유관기관(경찰·소방)간 초기 재난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기존에는 읍·면·동장과 소관 부서장에게는 주요 재난상황 발생시에만 상황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시 공직자의 비상근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직자는 사전에 짜인 개인

별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각종 재난특보가 발표 또는 발표된 이후 1시간 이내에 비상근무지에 대기해야 한다. 가령 오전 6시에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발표는 1시간 후인 오전 7시에 이뤄진다고 해도 비상근무 공직자는 재난특보를 최초 인지한 6시를 기준으로 1시간 후인 오전 7시까지 응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난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화된 재난안전체계를 운용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삼기자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든 수원시민이 새빛톡톡 가입해 직접민주주의 실현하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간담회’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제 목표는 123만 모든 수원시민이 새빛톡톡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빛톡톡이 성공해 수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

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새빛돌봄사업’도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매도시 논산시와 교류도시 봉화군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협업기관 직원들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수재의연금을 모아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은 3일간 논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해주셨다”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가



### 고양문화재단, 여유와 낭만이 있는 도심 속 여름휴가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 선보여

고양문화재단은 8월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음악 콘서트를 ‘2023 노루목 썸머 콘서트’를 8월 12일 토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4일간 매일 19시 30분에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이 열리는 노루목야외극장은 옛날 노루가 다니는 길목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이름이 붙여졌으며, 정발산에 둘러싸인 녹지 공간과 어우러진 공연장으로 자연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여 자연과 예술의 만남을 만끽할 수 있으며 탁월한 음향을 자랑한다.

노루목야외극장의 야외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되어 의미가 깊다. 또한 오랜만에 진행되는 야외 콘서트이니만큼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는 시민들에게 보다 큰 만족감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는 4일간 다른 주제로 펼쳐지는데 각각 ‘시네마 클래식 나이트’, ‘오페라 갈라 나이트’, ‘재즈 & 보사노바 나이트’, ‘올드팝 & 샹송 나이트’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온다. 모든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어떤 계층이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레퍼토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날인 8월 12일 진행되는 ‘시네마 클래식 나이트’는 국내 최초 오피니언 형식

클래식 전문단체로 음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어바웃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영화음악 클래식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되는 레퍼토리는 영화 ‘미션’, ‘아마데우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여인의 향기’ 등에 삽입된 클래식 작품들과 드라마 ‘하얀거탑’ 등에 소개된 클래식 소품들로서 관객들의 귀에 익은 명곡들이 대부분이다.

8월 13일 ‘오페라 갈라 나이트’는 고양시 대표 민간 교향악단인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실력파 솔리스트들이 연주를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를 통하여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들과 다양한 오페라 서곡, 그리고 연말연시에 단골로 연주되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왈츠 등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 반주로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여름 밤 숲속 음악회의 운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날인 8월 14일은 징검다리 연주기간 ‘재즈 & 보사노바 나이트’를 이어가는데, 여름밤에 제격인 남미 브라질의 전통 재즈 장르인 보사노바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최근 국내 재즈 여성 보컬리스트로서 각종 페스티벌 및 공연의 섭외 1순위이며 재즈 피아니스트로서도 발군의 기량을 뽐내는 ‘마리아 캄’이 그녀의 재즈밴드와 함께 라틴 보사노바 재즈의 진수를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보사노바 재즈의 고전적인 명반으로 손꼽히는 1964년 작품 ‘Getz & Gilberto’의 곡들과 보사노바 명곡들을 재

현하며 그 외에 유명 가요를 보사노바 형식으로 편곡한 작품들도 연주한다.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의 마지막 날인 8월 15일은 ‘올드팝 & 샹송 나이트’로 마무리 된다. 이날 프로그램은 흘러간 가요와 올드팝, 그리고 추억의 샹송 등으로 진행되는데 출연진은 ‘가는 세월’, ‘홀로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가수 ‘서유석’과 샹송 아티스트 ‘마담 샹송 김주연’, 포크가수 ‘오후’, 그리고 게스트로 ‘김여경’이 출연하여 플라멩코를 선보인다.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는 노루목 야외극장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이나 예매 없이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연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천이 심할 경우에는 고양아람누리의 대극장인 아람극장의 로비로 장소를 변경하여 ‘공연장 속 작은 음악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2023 노루목 썸머콘서트’의 진행을 결정한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권한 직무대행은 “실로 4년 만에 노루목 야외극장의 대규모 음악축제가 부활하여 감개무량하며 고양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고양아람누리를 찾자 자연속의 콘서트에서 무한한 힐링을 얻어간다면 좋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아람누리의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물론, 광장 문화행사의 활성화도 도모하여 고양시의 대표적인 아트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가

### 인천시, 강화-옹진 섬 주민에 9월 한 달간 추가택배비 지원

추석을 앞두고 인천 지역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한시름 줄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는 도심보다 평균 5배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비연륙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이 있어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9월 한 달간 강화-옹진의 27개 비연륙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미법·서검·주문·아차·불을·말도 등 6개 섬, 옹진군은 육지와 연결된 영흥·선재도 및 육도를 제외한 21개 섬에 거주하는 9월 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 약 13,7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9월 한 달간 도심에서 섬 지역으로 받는 택배에 한 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강화군은 건당 5,000원, 옹진군은 건당 10,000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심으로 발송하는 택배의 경우에도 섬주민이 운송장번호와 지불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배송비로 지불한 만큼 보전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실제 택배사 이용정보와 지불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오는 11월 중 신청일 기준으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인 9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을수 시 설해양정책과장은 “그동안 선박 내 차량 선적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이 청구되면서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용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도심과 동등한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가



### 오산시, 아파트 건강마을 운영...지역사회 건강증진

오산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9월부터 11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신장동과 초평동 각각 1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건강마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마을은 아파트라는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에 건강의 중요성과 운동의 즐거움을 알리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마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아파트는 8월 14일까지 오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마을로 선정되면 3개월간 운동프로

그램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체조, 정서지원을 위한 원예교실, 영양운동교육을 해주는 백세만세 건강놀이학교 등도 운영된다.

또한 월 1회 총 3회에 걸쳐 고혈압, 당뇨, 치매 관련된 웰빙건강교육이 진행되며 관리동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건 영양운동 교육도 계획되어 있다.

김희 건강증진과장은 “많은 주민분들이 건강마을에 참여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건강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가

### 광명도시공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구슬땀



광명도시공사는 31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호우 피해 지역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히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농가 연계 및 물자 지원을 받아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서일동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딸기재배 하우스를 찾아 오염된 상토를 제거하는 복구 지원활동에 힘을 보태며, 피해 지역민에게 위로를 건넸다.

서일동 사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지역 농가에 조금

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공사는 피해지역 복구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

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윤용민기자가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인과 소통의 장 펼쳐

## 경기도 예술인·경기도청·경기문화재단 간 정담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3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소통에 나섰다.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경기문화재단이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지난 10월 17일까지 9개가 넘는 예술인이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번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문화재단 실무자, 도내 예술인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청년협업마-

장예술포럼-문화플랫폼 등 예술 현장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소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정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청년예술-장애예술-공예예술-시각문학 등 총 4개의 활동 분야별로 예술인을 모아 분야별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인이 나이를 막론하고 각 예술 분야로 하나되어 재단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본 정담회에서는 2022년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시된 총 3가지 의제(예술 분야 마케팅 및 홍보지원 / 예술인지원사업 시각지대 지원방안 / 전방위적인 정보 안내 및 홍보)와 각 장르별 논의사항,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에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업 다양화, 누리집 활성화, 예술인 커뮤니티 및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이어졌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가 예술인과 경기

문화재단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되어 예술 분야별로 다양한 제안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안성시, 2023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쾌거

##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전국 최우수 수상

안성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 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 및 공약 이행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대회로, 올해는 '일자리 및 고용개선',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에 364개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그중 172개가 본선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안성시는 '어르신의 경험을 담아, 어르신의 경험을 담은 안성맞춤형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 사례 발표(PPT)를 거쳐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으며,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시민중심-시

민이익' 실천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형 일자리(창업지원형, 기후위기대응형, 마을공동체형)와 ▲노인빈곤 및 외로움 등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노노케어, 경로당 회계코디 등)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특히 노인이 사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분야 발굴을 통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102건의 공약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양시현기자



## '1.8조원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상견례회의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의 관련 당사자인 광주시-광주도시관리공사-우선협상대상자(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가 27일 사업추진을 앞두고 광주시청에서 상견례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날 21일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신속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광주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종합병원-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등 활성화 시설과 마

이스산업시설(MICE)-환승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우선협상대상자(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는 이번 회의의 통해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력을 더욱 굳건히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9월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해 2025년 상업-산업용지의 동시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 개최로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인천시 1883개항살롱, 스마트폰 활용한 마케팅 교육 실시

1883개항살롱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개항장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광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케팅이 중요해진 만큼 개항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용 컴퓨터 없이도 현장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항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항장 인근 상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3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해 손쉽게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실무 위주로 기획했다. 강의 내용은 ▲8월 25일(1회차)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세팅 방법, 플랫폼 상위 노출 전략 등' ▲9월 1일(2회차) '인스타그램 마케팅' '포털별 세팅법, 실습, 운영 노하우' ▲9월 8일(3회차) '카카오톡 채널' '채널 개설, 채널 소식 발행' 3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차수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이고,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1883개항살롱 현장 방문 및 전화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1883개항살롱의 이번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위축됐던 개항장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상인들에게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남기자

##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 개최로 향후 발전 방향 모색

화성시가 28일 시청에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각 실·국·소장과 관광진흥과, 화성시문화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화성시 대표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해양 레저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으며, 축제기간 동안 총 21만 명이 방문해 108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축제가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으로 무사고로 마무리됐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상생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지난 5일 화성시 대표축제위원을 중심으로 축제 전문가와 참



여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외부 결과보고회에서 제안했던 축제의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통해 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화성 뱃놀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통해 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화성 뱃놀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광명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달성 노력

## 광명시, 31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분기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31일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2분기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공동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상재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분과장, 18개 부서 담당자 등 5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포함된 만큼 연차별 계획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재 공동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추

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개 사업을 제외한 49개 사업이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청소년 심리상담 및 아웃리치 서비스와 광명시 시민안전기동단 구성 및 활성화 등 6개 사업은 목표를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 자립 체험 홈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유아과학교은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비 20억 원 가운데 과기부 사업 취소에 따라 부족한 예산 10억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제5기(2023~2026)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과 돌봄 강화 ▲가족돌봄청년 지원 ▲도시

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인생다모작지원센터 건립 ▲AI 이용한 노인돌봄지원체계 마련 ▲수변공원 조성 및 활성화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추진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충 등 민선 8기 공약 관련 16개 사업이 포함돼 추진 중이다. 제5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광명시 지역주민조사(1,400가구)와 10개 영역의 FGI(Focus Group Interview),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각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수립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고용, 안전, 문화, 교육, 주거 등 사회보장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4년마다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윤용민기자

# 안양시, 민선 8기 공약사업 40% 추진 완료...안양역앞 건물 철거 등

##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적극적 협의-정보공유해 공감대 얻어야"

안양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1년간 공약사업 161개 중 64개(40%)의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82건(51%)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 55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2분기까지 ▲안양역 앞 24년 간 방치된 원스퀘어 건물 철거 ▲사물인터넷(IoT) 활용한 관내 노후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양남초교 후문길 차없는거리 조성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 개선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했다. 그 밖에도 ▲출산지원금 2배 이상 ▲두루미 명화마을 도시재생 사업 ▲다동이내 보금자리 지원 ▲관내 공원 및 놀이터 정비 ▲경로당 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 ▲동물보호복지 전문부서 신설 ▲초등학교 생존수영 등 시민 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완료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박달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 평촌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아동친화도시 추진,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석수체육관 건립, 명학

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유소년 야구경기장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15건(9%) 사업은 검토 중인 단계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일약천금(一諾千金), 한 번 약속한 것은 천금같이 귀중히 여긴다는 말처럼 모든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우용기자



**1883 개항장 SNS 마케팅 스쿨**

스마트폰 하나로 인문부터 활용까지

개항장 SNS 마케팅 스쿨

2023. 8.25~9.8 (매주 금) 14:00~17:00

장소: 1883개항살롱 (개항장유니온 1층 대강당)

강연: **아이엠브랜드 대표** 일주정

배우서 배워 써는 블로그인스타그램 마케팅 거점 지사

- 블로그 마케팅: 2023. 8. 25. 금
- 인스타그램 마케팅: 2023. 9. 1. 금
- 유튜브 채널 마케팅: 2023. 9. 8. 금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실수요자대상' 본격 토지분양 시작

지난 5월, 개발계획(12차) 및 2단계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을 완료한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지난 27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 분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8~9월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주택건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 공급이 예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 변동 기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번 공급토지는 모두 부분준공 대상 토지로 24년부터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24년 하반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 2단계 내 조성되는 첫마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생30, 근생31목

지난 27일, 공급공고한 근린생활시설용



지 근생30,31블록의 9개 필지(소재지 안동시)는 단독주택지(D-11블록)와 접해있고, 동측에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호민지 수변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수상복합, 한옥형호텔, 하회과학자 마을 등이 계획돼 있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인근 하회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능을 수행할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D-11블록의 단독주택

입주 및 '스탠포드호텔 안동'완공 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회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별 공급면적은 430m<sup>2</sup>~477m<sup>2</sup>(130평~144평), 공급예정 가격은 396백만원~463백만원으로 평당 3백만원 정도이다.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0시부터 14일 16시까지,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 D-12블록

또한, 8월 첫째주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31필지(소재지 예천군)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해당토지는 기 분양 완료된 D-12블록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건너편에는 2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위치한 패밀리파크와 인접해 있고, 필지별 공급면적은 234m<sup>2</sup>~306m<sup>2</sup>(70평~92평), 공급예정가격은 141백만원~186백만원

으로 평당 2백만원 정도이며,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신청/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14일 10시부터 21일 16시까지이며, 개찰/당첨자 발표는 23일 예정돼 있다.

### ▲ 주택건설 연계 단독주택용지 : D-11블록 레이크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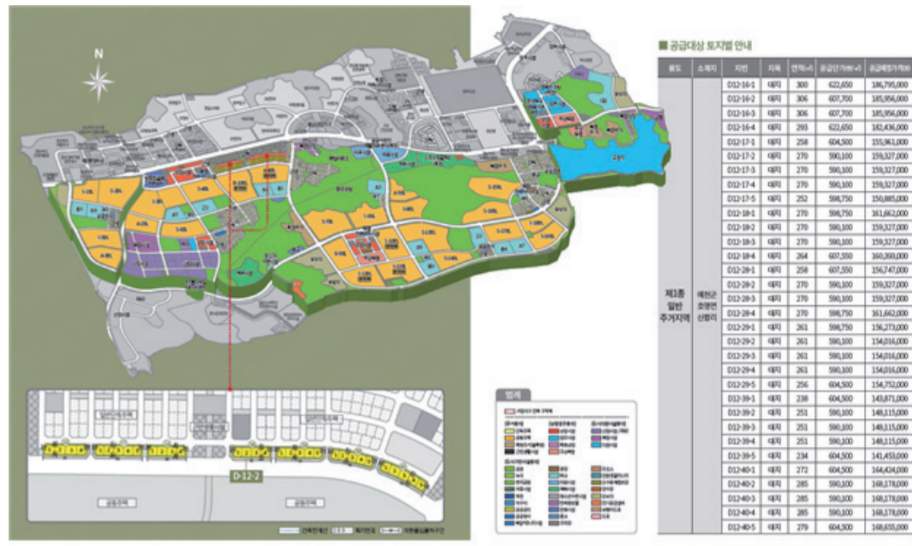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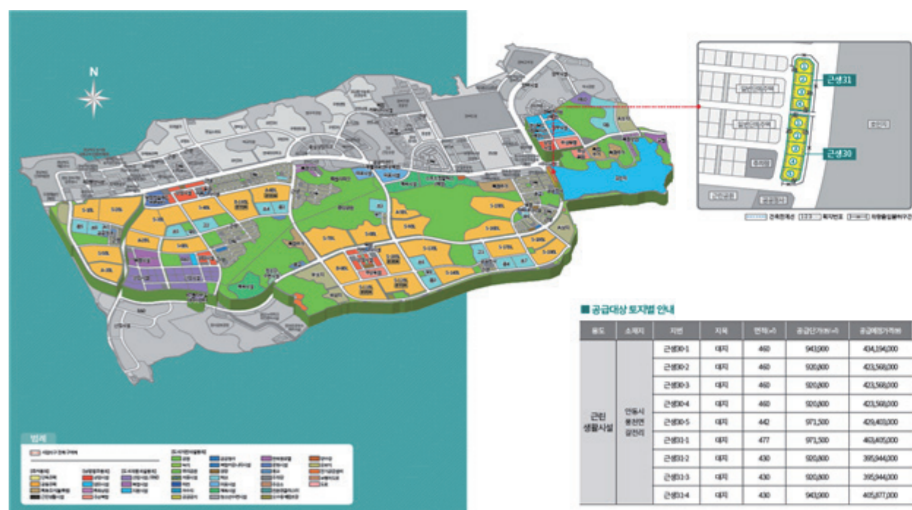
현재 공급공고 중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D-11블록(레이크빌리지)의 단독주택용지는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건설과 연계하여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안동시 D-11블록 0~9구역으로 토지 계약 시 주택건설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주택건설사는 공모 심사를 통해 (주)더존하우징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해당블록 내 견본주택 3개동의 건축이 완료되어 8월 1일부터 직접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주택 타입을 결정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총 106개 필지로 9월경 공급공고 예정이며, 토지 공급면적은 237~340m<sup>2</sup>(71평~103평), 토지 공급가격은 102백만원~136백만원으로 평당 130만원 정도

이며,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획일화된 기존 주거공간을 탈피하여 차별화된 고품격 단독주택 단지가 조기에 조성되어 레이크빌리지

및 호민지 일대는 경북도청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10만 자족도시를 계획으로 현재 2단계 조성공사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 평균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에 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는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심 내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물놀이장/캠핑장 등 4만평 규모의 패밀리파크 선(先) 개장을 앞두고 있다. 향후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경북도

청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유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도시 2단계 내 다양한 용도의 토지공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양문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판매고객처(054-650-3111, 3119)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 300만명 돌파 '전국 명소로 탈바꿈'

사천바다케이블카가 5년만에 누적 탑승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 국민 17명 중 1명이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방문한 것이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2018년 4월에 개통하여 23일만에 탑승객 10만명을 기록한 후 350여일만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같은 해 케이블카 매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개통 4주년되는 해 탑승객 200만명을 기록한 후 2년여만인 지난 29일, 누적 탑승객 300만명 돌파, 누적 매출액 440여억원을 달성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광도시로서 변방이나 다름없던 사천시를 매력있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며, 전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천바다케이블카의 매력과 지난 성과를 들여다본다.

사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불려진 '삼천포항'을 되살리고 해양관광산업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된 사천바다케이블카.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사천바다케이블카는 2018년 4월부터 본격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개통 당시 국내 최장 바다와 산을 모두 오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케이블카로 선로 길이만 2.43km에 달한다.

케이블카를 타면 여러 관광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단연 제일로 꼽는 포인트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에 빛나는 '창선-삼천포대교'이다. '창선-삼천포대교'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법으로 학계에서 예술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다리로 극찬받고 있다. 케이블카를 타면 그동안 자동차나 낚시배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대교의 웅장함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오직 사천바다케이블카에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정상인 각산정류장은 해발 407m로 그리 높지 않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삼천포항, 남해바다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 시원한 쪽빛 바다와 섬들, 아기자기한 등대와 어선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 같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은 만능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지자체의 케이블카와는 달리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소문 났지만,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풍동시험을 거쳐 초속 22m 강풍



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안정적인 탑승환경을 위하여 흔들림이 적은 자동순환 2선식(Bi-Cable) 적용, 돌발 기상상황 대비해 모든 지주에 풍향-풍속 계측기 설치, 비상엔진과 비상발전설비 구축 등 가장 안전한 최신식의 기술들을 모두 함축시켜 설계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 대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차체 구동엔진을 장착한 특수 구조차량이 케이블카에 직접 접근해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 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차량과 시스템은 국내에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유일하다.

또, 케이블카의 특수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케이블카-해양경찰-소방서 합동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성과는 수상내역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수상품' 대상, '2019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2020 제14회 고객감동경영' 대상, '2021 제15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제12회 행복더함 캠페인' 환경사랑공헌

부문 환경부 장관상, '2022 대한민국 혁신 브랜드 공공기관' 동반성장부문 대상, '2022 Korea Top Awards' 안전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간 고객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국제표준 규격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을 인증 받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기술을 케이블카 사업 현장에 안착시키고 있다.

한재현 이사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해준 고객분들과 사천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케이블카의 강점인 안전성과 독보적인 풍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누적 탑승객 300만명 돌파 기념 깜짝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8월 5일까지 케이블카 방문객 전원에게 이용료 1천원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선착순 1만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준/기자

## 문경시, 문경트롯가요제 수상자 등 홍보대사 위촉

###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수상자 3팀 및 문경출신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회장

문경시는 29일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수상자인 고아인, 김아현, 초코파이브와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회장 김주복을 문경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문경시 홍보대사인 한기웅의 진행으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트롯한마당'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신현국 문경시장장을 비롯해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과 300여 명의 청중 등이 참석하여 위촉패 수여, 기념촬영, 홍보대사 공영무대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고아인(아산 거주)은 지난 3일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에서 12팀의 본선 진출자 중 가수 송소희의 '배 띄워라'를 열창하고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아현(제주 거주)은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열창하여 금상을 차지했다. 인기상의 초코파이브는 정혜인, 신현서, 김가빈, 전설희, 신시우 등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구성된 키즈 걸그룹으로, 받은 상급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고, 앞으로 '기부돌'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주복은 문경출신으로, 한국전통무형문화재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시의 대내외



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장은 "신임 홍보대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폭넓은 연령층과 다양한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문경시를 널리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홍보대사로 위촉된 신규 홍보대사들은 향후 대외 활동과 주요 대표축제 등에서 문경을 홍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 방산 활성화를 위해 뭉치다

구미시는 31일 금오테크노밸리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주관으로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제1회 지역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4월에 선정된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의 23년부터 5개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창호 구미시장, 산·학·연·관·군 방산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며 지역 제조산업 환경을 고려한 방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 국방산업 육성 인프라 및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



책지원 외에도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지역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5년동안 499억원(국비 245, 지방비 254)을 투입해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건물 및 시험장비 구축하고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국방 관련 인력 양성,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R&D 및 사업화 지

원, 국방 관련 창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50년 방위산업의 역사와 함께해 온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첨단방위산업을 육성하고, K-방산 허브도시로 도약해 구미 국가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여름휴가 없다. 폭염 · 수해복구 전념”

## 당초 31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 반납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오늘부터 계획된 하계 휴가와 다음주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해외 방문 일정도 취소하겠다”며 “당분간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폭염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은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주의를 당부하라”며 “오전 9시 이후 논·밭 일, 공사장 작업 등을 못하도록 시군 및 소방과 협력해 가두방수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수해복구 작업 시 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폭염이 지속될 상황을 대비해 취약

계층 인명 피해, 건설현장 및 야외 근로자 건강관리,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철도·도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간부공무원들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군에 파견해 행정지도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8월 초 예정된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출장을 경제부지사가 대신 수행토록 하고 여름휴가도 반납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해복구가 아직 한창인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 관리와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 공무원들은 주중,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주말 수해현장으로 나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근수/기자

## 부산 서구 제19회 현인가요제, 8월 4~6일 송도해수욕장 개최

인순이·양지은·조명섭·이슬로몬·김동현 등 인기가수 축하공연도

국민가수 고(故) 현인 선생을 기리고 그에 버금가는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19회 현인가요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주최, 부산 서구·부산광역시 등 후원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현인가요제에서는 두 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8월 5일 최종 예선에 이어 8월 6일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가수중 및 상금 1천만 원)을 놓고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친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역대급인 97개 팀이 몰려나와 뛰어난 가창력의 숨은 실력파 가수지방생들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K-트로트를 선도하는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모은다.

8월 4일과 5일 오후 5시부터는 `선생님 그립습니다'와 `그 시절 그 노래'라는 주제로 현인 선생 추모 공연이 마련되는데 원로가수와 중견가수들이 총출동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감 넘치는 트로트 대향연을 펼친다.

8월 5일 오후 7시 최종 예선에서는 김동현(`내일은 국민가수' 2위), 유수현, 요요미, 우연이, 소유미, 손진욱, 향기, 원혁 등이 화려한 무대로 축제 분위기를 후끈 달군다.

하이라이트인 8월 6일 오후 7시 본선



에서는 인기가수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으로 손꼽히는 인순이를 비롯해 양지은(`내일은 미스트롯 2' 진), 조명섭, 이슬로몬(`내일은 국민가수' 3위), 황민우, 황민호, 하동연, 진미령, 서지오, 강민주 등 인기가수와 2022년 현인가요제 대상 수상자 문초희가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의 한여름 밤을 선사한다.

송준진/기자

## 대구광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창작 교육 추진

대구광역시는 지역 메타버스 산업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7월 3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주니어 창작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갖고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교육을 실시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이번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류성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협약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원장, 경북대 첨단기술원 김현덕 원장, 내당초·야양초·신아산·이곡중 교장이 참석해 메타버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과기부 주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에 선정, 동대구벤처밸리 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구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구축해 지역 메타버스 기업 지원 및 컨설팅,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메타버스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메



타버스 아카데미(수행기관: 경북대) 강사진을 활용해 지역 초중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교육, 진로탐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인재양성 교육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주요 교육과정으로 ▲블록 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창의력을 기르는 자기주도 레드브릭 코딩교육 ▲3D오브젝트 제작 및 제페토 연동 크리에이터 교육 ▲메타버스 진로탐색 및 교육 지원 등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가 메타버스 선도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 메타버스 인재로 자라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자작나무숲 일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 일원 임도구간 국가지점번호판 13개 설치

영양군은 산악지역 조난 등 산행사고에 선제 대응을 위해 자작나무숲 일원 임도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13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0km, 1km, 100m, 10m 단위까지 격자형으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임도, 사방댐 등 시설물이 있는 곳에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국가지점번호의 설정이 필요한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다.

영양군은 2019년부터 일일면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10개를 설치해 관리 중이며, 올해 자작나무숲 일원 임도구간에 13개 신규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포함해 총 393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갖추게 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로 산행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하다”며 “먼저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의 약 70% 해제 예정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열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

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을 만나 군위군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광삼/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7.31. 11:00 순천시장과 박람회 총감독 안내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효과를 특출히 내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찾는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31일) 오전 11시 순천시를 방문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한다고 밝혔다.

관람은 노관규 순천시장, 최덕림 정원박람회 총감독의 안내를 받아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의 순천시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9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순천시 등 호남권을 방문한 바 있다.

이때 박형준 시장은 순천시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낙동강국가공원 지정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순천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부산정원을 직접 확인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유치 홍보 협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지자체 참여정원은 서울과 부산이 유일하며, 부산정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의 상징적



인 의미와 부산의 매력적인 특색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84일 만에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의 관람객 수 440만여 명을 뛰어넘는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 박형준 시장의 이번 방문이 순천시 등과의 유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전국적 유치 열기 확산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삼락둔치 일원의 '낙동강 국가정원'지정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의 주제 정원, 운영방식 등의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등 정책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호남권에

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아울러, 우리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케이비씨(KBC)광주방송이 주최하는 지역발전 정책 공유의 장인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생방송 특강을 진행하면서 호남권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송준진/기자

## 영덕군,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 보고회 개최

- 국·도비 사업 101건, 5,186억 원 신청해 확보 총력 다짐

- 김광열 영덕군수, “군민이 행복한 도시 영덕의 반석 마련을 위해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간부·직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 다짐

영덕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전략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8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엔 김동희 영덕부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사업 담당 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진행된 ‘2024년 국·도비 건의사업 보고회’에서 거론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중점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영덕군은 국·도비 확보 중점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을 정산, 부진, 미진정도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광열 영덕군수와 김 부군수가 역할을 나눠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또는 경상북도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를 통해 결정된 건의 사업의 규모는 101건 5,186억 원이며, 이중 공모 등을 통해 영덕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89건 4,894억 원이다.

주요 사업 중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2,852억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 344억 ▲신

공항 연결 의상-영덕철도 건설 135억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2억 ▲고려 바다심터 조성 2억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12억 원이며, 군 시행 국·도비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0억 ▲관어대 이색풍경 등 웰니스 관광 분야 5개 사업 30억 ▲어촌신활력 사업 127억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정비 및 재해위험 개선지구 5개 정비사업 263억 ▲도시침수 예방사업 136억 원 등이다.

영덕군은 정부예산 일정상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해야 하는 9월 2일까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내국세 감소로 중앙부처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의 편성이 축소되고 내년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

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영덕군의 우수한 행정역량이 어려운 여건에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군민이 행복한 도시 영덕’의 반석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간부 직원과 담당 직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문화/기자





### 의성 최치원문학관, 천년숲길 맨발걷기 행사 개최

의성군은 최치원문학관 및 고운사 일원에서 30일 오전 10시 '천년숲길 맨발걷기'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치원문학관이 주최, 주관하고 의성군과 고운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문학관에서 고운사까지 1.5km 구간 '천년숲길 맨발걷기' 체험을 비롯해 의성 자두, 복숭아 등 농·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고운문화장터'가 열린다. 또한, 천년숲길을 따라서는 사진 전시회 및 목판 판화, 고운 시 손글씨 써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천년숲길 맨발걷기'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문학관에서 고운사 일주일까지 이어진 천년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바쁜 일상에서 지친 참가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도착지에는 가족, 이웃 간의 화목과 화합을 위한 세족식을 실시했다.

또한, 고운사 일주문 주변에 마련된 '고운문화장터'는 17개 업체가 참가해 자두, 복숭아, 장아찌, 고추장 등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체험행사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거리와 함께 가족, 이웃과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접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자원 다각화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영주시 수해 농가 영농상황 점검

#### “수해복구와 영농 재개 돕기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

영주시는 지난 31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장수면 성곡리와 봉현면 노차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두 지역은 집중호우에 의한 비탈면 토사유출로 과원이 유실되고 매몰돼 큰 피해를 봤다.

현장을 찾은 조재호 청장은 각 농가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영농현장 복구와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에 동행한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도 긴급 복구와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며 “가

우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복구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영덕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아픔에 현장을 찾아주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손돕기와 영농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역담당관들을 통해 수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품목별 전문가를 파견해 생육 관찰(모니터링)과 기술지원 등을 펼쳐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울릉군, 2023년 평생학당 어르신 뇌건강 주산놀이 교육과정 수료식



울릉군은 지난 30일 현포1리 경로당과 태하1리 경로당에서 2023년 평생학당 어르신 뇌건강 주산놀이 교육과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평생학당 어르신 뇌건강 주산놀이는 교육 과정은 매주 토·일 5주간 진행됐으며 울릉군이 주최하고 울릉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뇌건강 주산놀이와 주판열쇠고리 만들기, 학사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수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삶의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

이번 수료식에서 현포1리, 태하1리 경로당 최고령 수료자인 손경례씨와 김문선씨

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평생학당 어르신 뇌건강 주산놀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울릉군은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울릉군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재/기자

## 경북도, 14년 표류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정상화시동

### 김천 송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

경북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내부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방식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 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조용진 경북도의원 등 정치권과 사업시행자(신광호 LH경북본부장) 및 지역 주민 80여명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 소통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관계자는 '송천지구'에 343,265㎡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백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천9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택지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120,818㎡의 근린공원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밀착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후 반영하면, 김천·구미 산업단지 배후에 명품 주거지 역할 및 김천시 동부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아시아태평양도시 외국인 청년, 대구여행 너무 좋아요!

### 투어 마지막 날, 개인 소셜미디어 자발적 홍보 및 대구관광 느낌점 발표

대구광역시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와 연계해 '2023 아시아태평양도시 외국인 청년, 대구문화 체험관광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공동 파트너인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2009년부터 관광분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인 'K-CLIP(Korean Culture and 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진행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 전통,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해 왔다.

특히, K-CLIP 행사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확대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년대표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교류를 이어온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돼 올리는 그 의미가 뜻깊다.

참가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외국인 청년 30여 명이 참여해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회원도시인 부산시, 남해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대구광역시시는 2003년 6월부터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회원도시로 가입해 회원도시 간 국제교류 관광협력, 신규 관광정책 사업 기획, 공동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에 도착한 외국인 청년들은 30일부터 대구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떡볶이 만들기 및 치킨 만들기, 야생화 만들기 체험을 하고, 근위 한밤마을, 화본역과 BTS 뷔 벽화거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한복 입고 근대골목투어 등 대구의 다양한 관광매력을 만끽했다.

투어 마지막 날에는 팀별 발표회를 통해 외국인 청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대구관광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외국의 MZ세대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23 아시아태평양도시 외국인 청년, 대구문화 체험관광 행사'는 대구시가 국제관광교류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관광 교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에 대구광역시 관광과장은 “외국인 청년들이 과거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에서 준비한 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K-CLIP)에 참여한 뒤 만족도가 높아 해당 지역을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행사 참여자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에서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대구관광 홍보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최우수, 기후환경분야 우수로 행정력 탁월함 대외적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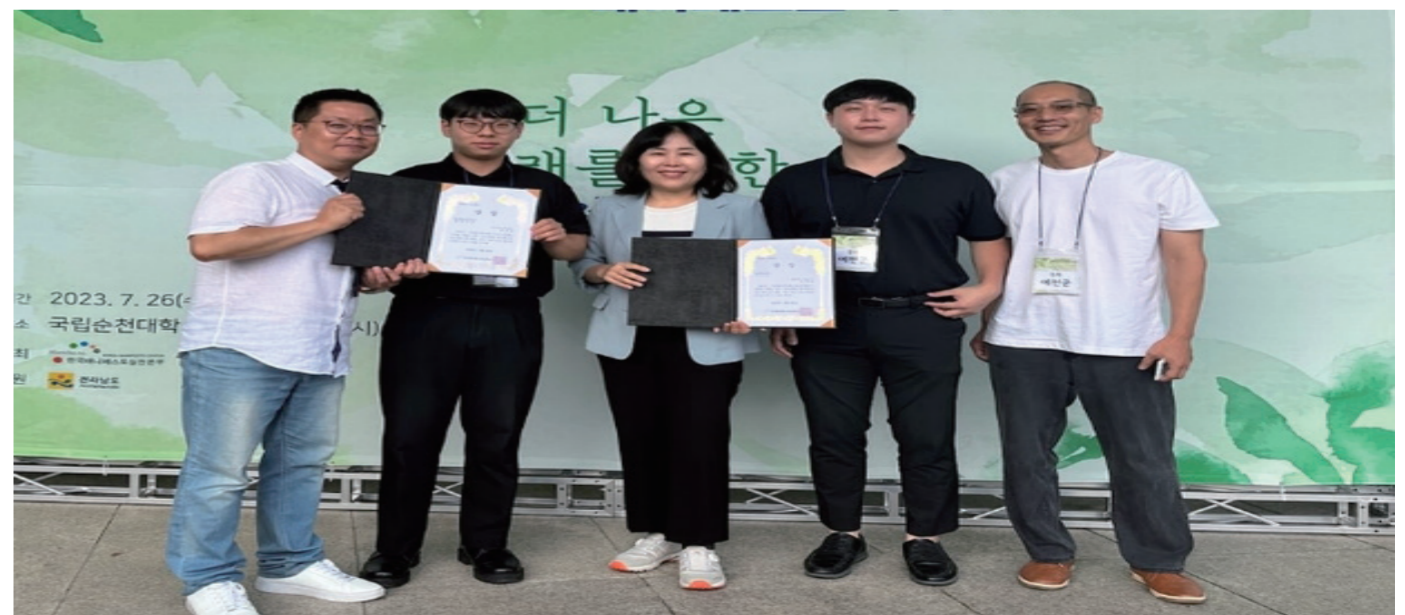
예천군은 지난 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 2관왕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을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를 평가했다.

대회에는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36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에 172개 사례를 선정, 지난 26, 27일 양일간 국립순천대학교에서 2차 본선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예천군은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의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례와 기후환경 분야의 클린예천 만들기 범군민 프로젝트 사례가 사업의 창의성, 적합성, 소통성, 심사 준비도, 발표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의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은 잊혀지고 쇠락하는 지역 전통마을을 금당실과 건축물에 마



을호텔, 금당주막, 체험장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마을에 원동력을 부여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또, 기후환경 분야의 클린예천 만들기 범군민 프로젝트는 풀로깅과 두박이를 연계한 군민 참여 쓰담달리기 확산과 보물마차 운영, 도청 신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재

탄생 등 군민과 함께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 사례에 호평받아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수상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 행복지수 1위 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도 우수(A) 등급을 받아 탄탄한 공약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금자/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굳건한 한미 동맹 상징' 미8군 수해복구 지원 격려

### 28일, 예천 복구현장 찾아 미8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 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예천군 은풍면 백석리 일대에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 복구하고자 투입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병삼 50사단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복구 현장을 찾았다.

미국 제8군(Eight United States Army, EUSA)은 미국 육군의 야전군이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지상군으로 "같이 갑시다(We go togher)로 표현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남침하자 신속하게 한반도로 전력을 전개시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복구지원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1공병대대 26명 이외에도 50사단 공병대대/1117야공단 17명, 16전투비행단 80명 등 총 123명의 군 병력이 투입됐다.

피해지역이 좁은 길로 인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다목적굴삭기 등 장비 9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복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8군은 다음달 1일까지 예천에서 복구를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드론으로 촬영된 피해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 11공병대대 장병들과 악수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호우 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내주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쟁의 폐허 속에 혈맹으로 맺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알리고 6.25전쟁 한미 최고사령관이자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지난 27일 철골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건립했다"고 장병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각종 재난 시 좁은



골목길 등 피해복구 작업에 효율성이 높은 장비인 스키더로더를 내년에 지역방위사단인 50사단에 지원하고, 인공과 물적 자원이 적은 취약지역은 인공지능, 드론 등

을 활용한 사전영상을 통해 재난대비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신속히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하계휴가철 하천정화활동 실시

영양군은 2023년 7월 28일 ~ 8월 4일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주요 유원지 및 계곡에 대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장마철 수해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여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8일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및 석보면 직원 40여명은 영양군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석보면 삼의계곡 일원에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해 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댐 등에 유입되어 수질 오염 및 수생태계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

점을 일으킬 수 있어 영양군은 하천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양군은 수해계곡, 삼의계곡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휴양지의 쾌적한 행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동 청소반을 편성·운영하여 휴가철 쓰레기가 수거에 힘을 쏟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영양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아이돌봄 서비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맡겨요!

###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와 가까운 군수 관사로 이전

울진군은 울진군수 관사를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로 탈바꿈하여 운영 중이다.

울진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울진문화원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돌봄센터를 아동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와 가까운 울진군수 관사로 이전했다.

돌봄센터가 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돌봄을 위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했던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설치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상시돌봄 정원 20명 모집이 끝난 상태며, 당일 등록 및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돌봄은 이용가능하다.

이용료는 월 3만원으로 학기 중에는 11시부터 저녁 8시,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아동에 대하여 급·간식을 제공하고 숙제 지도뿐만 아니라 체력,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돌봄센터 이용 학생 학부모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군수 관사를 돌봄센

터 운영하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청송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참석

- 산소카페 청송군의 사통팔달 교통망 건설 '박차'
- 윤경희 청송군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청송의 교통 중심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 찾아오기 쉽고 편리한 산소카페 청송군 건설"

청송군은 지난 1일, 정선군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산소카페 청송군의 사통팔달 교통망 건설에 한층 더 다가갔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의결하기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봉화, 영양, 청송, 영천 총 10개 지자체의 단체장을 초청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회장단 구성과 고속도로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1대 회장으로는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출되었으며, 10개 시·군의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 도모, 공동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약 제정,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채택하였다.

한편 총사업비가 14조 8천 여 억원이



투입되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경상북도 영천까지 309.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이 발표된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원 정책과제에도 포함되었으며, 올해 6월 국토교통부는 현황조사 및 교통수요 예측, 최적노선 및 대안검토,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최적 대안, 사업비 등 사업시행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6월에 개통한 삼자현 터널과 함께 남북9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된다면 청송은 경북 내륙에서 손꼽히는 물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타지자체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송의 교통 중심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 찾아오기 쉽고 편리한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클린경주 추진기획단 "청렴한 경주" 앞장 서

### "청렴하면서도 유연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높여야" 강조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경주시의 청렴기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찾아 해결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자"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31일 오전 대외협력실에서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 제2차 보고회를 가졌다.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경주시의 청렴 조직 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상황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경주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일정 보고와 실적 점검을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 시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하반기 중점 청렴 추진 시책으로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분야 갑질 개선 노력 강화 △스기관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을 제고, 부패취약분야 소통 갑질회 확대 실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컨설팅 시행, 간부 공무원 집합-대면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청렴시책 내실화는 물



▲ 주낙영 경주시장이 31일 오전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 제2차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론 청렴도 최고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일 시청 앞천홀에서 지역 민·관·산·학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경주시 청렴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관별 촘촘한 협업 강화로 '청렴한 경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 이틀간 5만 명 몰려 '큰 인기'

### 월영달빛이 들려주는 안동 문화재 이야기에 인파 몰려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린 안동 월영야행 1차 행사에 약 5만3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라는 주제로 테마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긴 장마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문화 토크 콘서트, 역사 퀴즈대회, 문화재 AR 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동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월영교 전통등간 전시, 행사장 곳곳의 조형거리, 안동의 문화재를 테마로 한 대형달 등의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2차 월영야행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운영한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월영공원에서 진행되는 역사 퀴즈대회와 문화 토크 콘서트는 오는 4일 19시와 20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고, 탈놀이 대등난장은 5일과 6일 2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평일에는 체험 프로그램 등은 진행되지 않지만, 상시 방문객들을 위해 야간 경관조명과 일부 푸드트럭은 운영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문화재와 더 친숙해지며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오는 4일부터 개최될 2차 월영야행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 찾아온 르네상스... '라온페스타' 성황

페이백 행사 7천여 명 참여, 1억 8천여만 원 매출 증대



광주 동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충장로 전역과 충금·금남로 지하상점이 일원에서 개최한 '라온(RA\_ON)페스타'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지붕없는 백화점! 충장에서 즐기는 페이백(payback-상품 구입 시 지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나선 가족·친구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화 트랜스포머 캐릭터로 분한 코스튬 플레이어의 로드 퍼포먼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들의 공연 ▲나만의 은반지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충장로와 지하 상

점가에서 당일 구매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5천 원 쿠폰을 지급한 페이백 행사는 4일간 총 7천여 명이 참가해 1억 8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동구는 여세를 몰아 가을에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연계한 ▲충장 버스킹 ▲충장 나이트-에코 그린 마켓 ▲공동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겨울에는 충장로 상인들의 단합력 증진·동기 부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라온페스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1년 내내 충장로에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면서 "다가오는 가을 행사에도 차별화된 즐거움 콘텐츠로 시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큰 산 넘었다 하위법 개정 후 지리적표시등록 등 행정절차 남아

영광군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수산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지리적표시등록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예로부터 영광굴비의 특별한 맛의 비밀은 조기를 굴비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 중 하나인 과정이 쇠간인데, 양쪽 아가미와 입, 몸통에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뿌려 수분을 빼고 간이 적당하게 배도록 하는 염장법이다. 그다음으로는 법성포로 불어오는 해풍으로 말리는데 설간한 조기를 짚에 엮어 걸어 겨울철에 얼렸다 풀렸다 하면 속살이 노릇한 황금색으로 마르게 된다.

영광굴비가 고유한 가공 기법으로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영광굴비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광굴비의 우수성이 공인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지역특산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이제 법적 제약이 해소된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영광굴비지리적표시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큰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남은 등록 심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 목포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우수상, '같이하는 우리동네 가치있는 마을기업, 만인계 마을기업'

목포시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 공약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국 155개 기초지자체에서 364개 사례가 공모됐으며, 목포시가 수상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에는 59개 사례가 접수됐다.

평가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본선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목포시는 '같이하는 우리동네 가치있는 마을기업, 만인계 마을기업'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활성화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만인계 마을기업 제갈경희 대표의 현장감 넘치는 발표와 만인계통 추천 모습을 재현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로 참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민·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했다는 측면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수상을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쇠퇴해가는 원도심에 활



력을 불어넣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며,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시

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최선을 노력을

박종배/기자

## 노관규·박형준·김동연, 수도권-남해안벨트 이끄는 세 남자 순천에서 뭉치다

노관규 순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정원박람회 사례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3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방문한 김 지사와 박 시장을 만나 오찬을 나누고, 직접 가이드로 나서 정원박람회장을 소개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은 31일 오전 순천시와 부산시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며 협약·조성한 부산정원을 포함해 국가정원 일대를 돌아봤다. 박 시장은 "누구든 여기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잔디와 흙을 밟으면서 삶을 돌아보는 멋진 휴양시설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큰 성공 거둬 부산이 참고할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응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순천의 운영방식을 많이 참고하고 배워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로 순천에도 큰 시너지가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 하나만이 아니라 대

한민국 전체, 남해안 벨트의 고민을 담아내고 계실 것이기에 순천도 그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며 부산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

오후에는 김동연 지사의 방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노 시장과 함께 국가정원 등 문 일대를 돌아본 후 "경기도가 정원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순천에서 배워갈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4대(기업, 산단, 공공, 도민) RE100 분야 중 공공, 도민 분야에서 순천을 많이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0년대 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일할 당시 "정원박람회 초기 입안 단계에서 노관규 시장님의 비전을 듣고 뜻을 같이해서 만든 토대가 지금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됐다. 저에게 순천은 소회가 남다른 곳"이라며 순천과 정원박람회에 얽힌 추억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재라는 커다란 숙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수도권벨트와



남해안벨트를 이끄는 두 리더께서 순천을 방문하신 것은, 순천만이라는 고유한 자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꿔낸 순천의 사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원박람회 이후의 그림도 이에 맞춰 착실히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84일 만에 500만 관람객(7월 31일 기준 558만 명)을 돌파했다.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판을 바꾸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지방 도시의 신모형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전국의 기관·단체 280여 곳이 순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이승준/기자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본격화 '공동 협력 연구소 준공'

연구소에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공동 실험실 등 갖춰

완도군은 지난 28일 완도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 윤영덕 국회의원, 이철·신의준 도의원,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는 지난 2019년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총 11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게 됐다.

연구소는 해양바이오 관련 대학, 기업 및 연구 기관들의 공동 협력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연면적 3,297㎡(997평) 규모에 기업 연구소 10개실, 스타트업 30개실, 공동 실험실, 동물 세포·미생물 배양실, 대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앞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해양 바이오 원료를 이용한 각종 소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소 입주 기업에게는 시설 및 장비 사용 할인, 홍보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준공식과 함께 조선대 '해양헬스케



어 유효성 실증 센터' 개소식도 함께 가졌다.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는 2021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전남도, 완도군이 지원한 160억 원 규모의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에 조선대학교가 선정되어 신지면에 위치한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구축됐다.

실증 센터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표준화 플랫폼 개발부터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소재 연구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완도군은 연구소와 실증 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해양바이오산업의 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연계를 통해 산학 연구 협동 연구 체계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면서 "조선대와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

업으로 육성해 지역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완도군 중심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해조류 기능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해조류 육상 양식·가공 시설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양영율/기자

# 전남도, 개성만점 지역 매력 전국에 알린다

## ‘로컬 콘텐츠 페스타’서 남도장터·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

전라남도가 경기, 부산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홍보관을 운영, 지역의 다채롭고 독특한 개성만점의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8월 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종합홍보관, 남도장터홍보관, 고향사랑기부제홍보관을 설치해 우수한 콘텐츠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종합홍보관에서는 전남도의 강점과 비전, 역점시책을 소개하고, 올해까지 2년간 이어지는 전남도 방문의 해를 비롯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3 김대중평화회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5대 초대형 행사(메가 이벤트)와 함께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가치 창출가로는 목포지역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상생 브랜드 기업 (주)공공공장, 순천기반 사회적 벤처기업 (주)유익컴퍼니, 여수 지역관광 로컬 콘텐츠 기업 (주)여수와, 나주의 복합문화공간 (주)3917마중, 담양의 아트 슈즈(Art Shoes) 브랜드 뮤지엄재피 등 대표적 지

역 콘텐츠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의 신선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인 남도장터 홍보관에서는 영랑 찰보리빵, 구례 산수유청, 완도 해초류 등 전남 50개 업체의 우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순 커피농장 ‘두베이 커피플랫폼’이 참여해 전남에서 생산한 커피를 현장에서 선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홍보관에서는 광양, 구례, 고흥, 강진 등 주요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소개하고, 이미 38만 명이 가입해 화제가 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31일 열린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천혜의 자연자원, 유구한 역사·문화유산, 어머니 손맛과 같은 음식문화 등 비교우위 자원이 풍부하다”며 “전남 고유의 문화·예술자원과 지역 공간, 사람, 이야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로컬 콘텐츠가 지역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순천 여행을 했다가 행사장을 찾은 이수연 씨는 “전남홍보관이 지역 대표 산업이나 관광자원, 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전시물품을 재밌게 구경해 소개하고 있어 흥미로웠다”며 “전남에서 아열대작



물인 커피를 생산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놀라워했다.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우수한 콘텐츠를 홍보함으로써 로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자치TV 등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전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경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1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전시·홍보는 물론, 다양한 체험행사와 경품행사가 진행되며 입장객에게 소정의 쇼핑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박중배기자

## 광양시, 제22회 광양전어축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

광양시 진월면은 제22회 광양전어축제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달빛나루! 망덕포구에서! 여름의 끝자락은 고소한 전어와 함께!’라는 주제로 진월면 망덕포구 무점성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는 명소 탐방 스탬프 이벤트, 율동주를 품은 달빛나루 시우(詩友) 정병욱 시 짓기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돼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첫째 날인 8월 25일은 백일장 대회 및 관광객을 위한 즉흥 무대, 전어가 요제 예선이 펼쳐지며 ▲둘째 날인 26일은 청소년 행북 ‘樂’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해 축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어 잡기 체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인 전어잡이 소리 시연, 진월 농악단 공연, 광양전어가요제 본선과 초대가수 정동원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은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색소폰 퍼포먼스, 전어 잡기 체험, 7090 포크 뮤직, 버블 쇼,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초대가수(사기바, 목비 등) 축하공연, 불꽃쇼를 마지막으로 폐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전어구이 시식 체험,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운영, 맨손 전어 잡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어축제가 열리는 망덕포구는 광양 진월 IC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춘휘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수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광양의 대표 축제로서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고소한 전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남원시,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의 새 장을 열다

### 협동조합 모의 창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교육 사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아카데미가 용성중, 남원중, 금지중 3개교에서 2023년 1학기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추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청소년 아카데미는 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사회적경제 의미와 가치를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 모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중학교 1학년생 51명과 함께 총 76시간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이해 ▲모동별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과제 탐색 ▲공동체 사업 개념 이해와 협동조합 모의 창립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 활동 홍보 영상 제작 및

성과 공유회로 구성됐다. 성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협동조합 플리마켓과 스낵 코너에 학교 급우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금지중학교는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마당을 열었다.

또한 남원중학교는 퀴즈+모의 협동조합 체험권 이벤트에 1~2학년 200여명, 용성중학교는 팝업 매장에 150여명이 참여하여 자유학기제 수업이 학교 내 작은 축제로 성장한 이색 사례를 연출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실제 남원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협동조합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원순환과 노플라스틱 활동, 농촌 재생과 마을카페, 청년 양조장 사례를 생생하게 공

유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서울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햇빛발전소와 매점 운영 사례를 비대면 줌(ZOOM) 수업으로 공유, 지역을 넘나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실험적 교육 사례를 구현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모의 협동조합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동하며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실제로 만나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배움이 좋았다”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독일대표단 순천에 오다, 이틀간 정원박람회 체험

### 30일, 31일 잼버리 참가 독일 대표단 2천여 명 방문, “다시 오고 싶다” 호평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독일 대표단 2천여 명이 30일, 31일 양일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찾았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서 입장 퍼포먼스를 열고 독일 대표단을 맞이했다.

독일 대표단은 30일 1천 명, 31일 1천 명으로 나누어 국가정원 꿈의 남문으로 입장해 정원박람회 현장 체험에 나섰다. 대표단은 소그룹을 지어 이동하며 어린이동물원, WWT습지 등 국가정원 서원을 탐방하는가 하면, 꿈의 다리를 건너 독일정원, 호수정원, 가든스테이, 개울길광장 등을 자유롭게 관람했다. 또한 사계절 잔디광장에 누워 더위를 식히거나 박람회장 곳곳에 놓인 그네를 타기도, 박람회장에서 만나는 관람객들과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등 활기찬 모습도 눈에 띄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은 “순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이 서있는 오전그린광장은 독일의 본 저류지 공원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곳이다. 독일의 정원과 비교해서 박람회를 보다 보면 더 재밌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순천의 정을 뽐낼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익해 관람할 것 또한 당부했다.

박람회장을 방문한 독일 대표단은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국가정원에 오길 잘한 것 같다. 꼭 다시 오고 싶다.”, “정원이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놀이 시설에서 물장구도 치고 하니 시원하고 좋았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참 깨끗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라며 호평했다.

조직위는 지난 1월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과 정원박람회를 통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독일 대표단이 순천에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국제행사다운 면

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 1일 개장해 국내외 관람객 550만 명이 다녀가면서 흥행을 지속하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까지 3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크루즈 여행객 모객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 나주시, 공동체 소통·협력 창구 ‘나주시 마을넷’ 창립

전라남도 나주시가 마을공동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대회의실에서 공동체 대화모임인 ‘나주시 마을넷’ 창립 총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마을넷 창립은 지난날 전남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찾아가는 전남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간담회 안건으로 상호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전남마을공동체 16곳 단체, 나주시지역공동체 21곳 단체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해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대화모임 구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물인 나주시 마을넷은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간의 소통 창구이

자 정보교류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식전 송가락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신임 임원선출, 총회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마을넷 회장에는 이종운 용문사랑공동체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넷 소속 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나주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환경 개선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윤병대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공동체들이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드린다”며 “마을넷을 통해 공동체 활동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며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구례군, 2023년 해피드림 문화 체험 업무협약 체결



전남 구례군은 7월 31일 군청 군수실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와 ‘2023년 해피드림 문화 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지역 내 상호교류 확대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2023년 해피드림 문화 체험은 8월부터 10월까지 10회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년 해피드림 문화 체험을 통해 320명의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구례자연드림파크 공방 견학, 영화관람, 레스토랑 식사 등을 제공한다. 문화 체험 사업비 1천만 원은 자연드림

씨앗재단에서 후원한다.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는 해피드림 문화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참석자 관리 등을 지원한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 내 노인복지를 위해 후원해 준 구례자연드림파크 김도희 본부장님과 문화 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해 준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 손병관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영암군,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암군이 지난 7월 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남연구원 이 공동주최한 이번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군·구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문제 해결 방안과 대안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정책역량 등을 강화하는 자리.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일자리 및 고용개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등 7개 분야에 총 155개 기초지자체의 364개 사례가 접수됐고,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72개 사례가 행사장에서 소개됐다.

영암군은 경진대회에서 ‘군민이 존중받는 주권행정-영암군 플뿌리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 ‘영암민주주의 마당’과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참여·화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암군은, 심사위원과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신속한 민원해결 소통폰 개통,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호응이 컸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핵심가치인 ‘군민주권행정’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군민이 군정을 이끌고 지역의 혁신을 주도해가는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 4월에 열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고등급 SA를 받아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오정현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 돼야” 교직원 3단체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협의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문화적 방안 마련”

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원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흥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원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

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김범삼기자

# 경북교육청,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추진속력최대치

### 베트남 하노이시 교육훈련청과 MOU 체결

경북교육청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시 교육훈련청과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업무추진단, 쩌 떼 끄영 청장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MOU는 하노이 교육훈련청이 중등 직업교육 분야로 해외 교육청과 맺은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직업교육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과 하노이 교육훈련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직업교육

을 통한 기술 인재 양성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유학생의 교육 및 안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등을 위해 하노이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우수 유학생의 입학이 두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고등학생 독립운동길 순례단 성료

### 2023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경북교육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국내 독립운동길 순례단이 4박 5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순례단은 24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신홍무관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안동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내앞마을, 추풍령 급수탑과 천안 독립운동기념관을 탐방하며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서울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북국 탐방에 이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다지고, 28일 국립서훈현충원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 및 독립운동가 묘역 참배를 끝으로 4박 5일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희근 관장의 특별강연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EBS 대표 강사 김준우 선생님의 역사 토크쇼 등을 통해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이념적 갈등의 타협점을

찾았던 독립운동가의 자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학생들은 폭염 속에서 힘겹게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독립운동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독립운동길 순례단에 참여한 현 일고의 한 학생은 “4박 5일간의 순례단 활동을 통해 값진 경험을 얻고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이상룡 선생 등 많은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긴 시간 동안 독립운동길 순례단 활동을 의미 있게 마친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확대해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여름 계절학교

### - 2023학년도 영덕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계절학교 실시

### - 박재식 교육장,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에 적극 노력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초등, 중·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수)부터 오는 2일(수)까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계절학교 프로그램으로는 VR체험과 체육활동, 진로·직업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중·고등학생은 VR체험과 학기 중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육활동으로 ‘탁구’, 진로·직업 프로그램으로 목공예와 요리수업으로 운영되고, 초등학생은 요리

와 목공예, 방향제 만들기 수업으로 방학 중 생활에 활력을 주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과 친숙한 지역사회 인재를 활용하였다. 박재식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 및 인재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부천교육지원청, 2023년 학교시설공사 청렴·안전·품질 공감연수

### 공사관계자 반부패 청렴의식 고취 및 투명성 제고

부천교육지원청은 7월 28일(금) 부천 관내 학교 공사현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청렴·안전·품질 공감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공종별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안전·품질관리상의 문제점과 반부패 청렴정책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부천교육지원청은 소통과 공감 등을 통해 공사관리·

감독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며, 청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안전한 학교공사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속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고품질 학교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우이 여름계절학교』 운영

### 한울원자력본부, 계절학교 사업 지원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울진 관내 학교와 울진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고우이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고우이』는 경상북도 울진군의 고구려 때 이름이며, 여름계절학교는 방학 중 배움의 경험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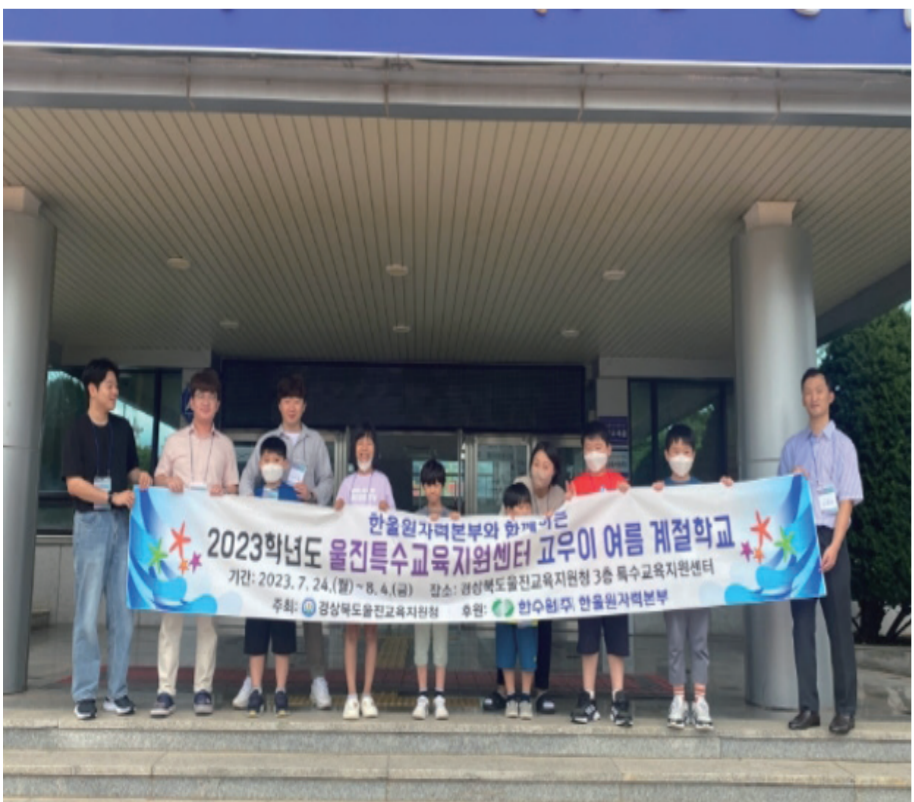
이번 계절학교는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

으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학년, 울진초에서 2학년, 후포초에서 1학년, 총 4개 학급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박경화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고우이 여름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방학 중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 확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개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고우이 여름계절학교』는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의 사업 지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계절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문화기자



# 경산Wee센터, 여름방학 추수상담 프로그램 실시

### ‘위(Wee)로의 작은 숲’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023년 7월 28일 Wee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10명과 학부모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추수상담 프로그램 ‘위(Wee)로의 작은 숲’을 진행했다.

추수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종결 및 Wee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기능상태 및 행동변화의 지속상태를 확인하고 격려 및 지지를 통해 긍정적으로 적응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추수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원예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창의력 향상 등 다양한 정서적 만족감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 날 학생 및 가족들은 추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얻었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균 교육장은 “상담 진행 및 종결학생들이 추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다음 학기를 위해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 부산교육청, 교원보호위원회 직접 개최한다

부산시교육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원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원 보호를 위해 시도교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억지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인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 원까지, 개인 치료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또한, 24일 발표 즉시 OO유치원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

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권고하는 등 피해 교원의 보호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7월 31일 오후 4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 영양 들어다보시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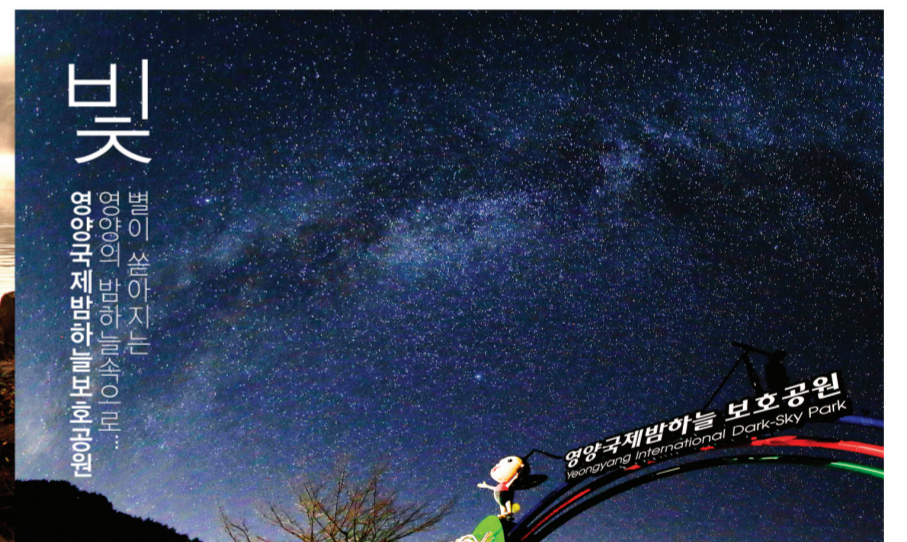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영양군 대표 관광지



물

영양의 푸른빛과  
영양의 맑은 물...  
영양군 대표 관광지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군 대표 관광지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군 대표 관광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군 대표 관광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대전사랑카드 0시 축제·추석 소비 촉진 이벤트

8월~9월 진행... 캐시백 3%→7% 상향, 월 30만 원 한도는 유지

대전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대전사랑카드 0시 축제·추석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8월 11일 개최 예정인 '2023 대전 0시 축제'와 9월 추석을 맞아 즐거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3%로 제공됐던 기본 캐시백은 행사 기간 내 7%로 상향 제공한다. 단, 충전 한도는 기존처럼 월 30만 원이다. 이번 캐시백 행사로 복지대상자가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충전금 사용 시 7% 캐시백, 연 매출 5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캐시백을 받는다.

또한,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1 맞춤 이벤트'를 진행하여 1월 1만 원 이상 대전사랑카드 사용자를 주 1회 추천하며 정책수당 1만 원을 제공한다. 이 밖에, 대전사랑카드와 연계해 운영 중인 '대전사랑몰'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첫 구매 회원 선착순 5,000명에게 웰컴쿠폰·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7만 원·30% 쇼핑쿠폰을 지원한다. 특히, 0시 축제 기간인 8월 11

일부터 8월 17일에는 '반값 DEAL'을 진행해 행사상품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대전사랑몰에서는 행사 기간 외에도 상설 할인코너 ' 특가ON', 중고·리퍼상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관인 '가치소비 FESTA'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사랑기부제'를 추진한다. 이는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시에서 지원하여 시민이 선택한 동(洞)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전사랑카드 앱에서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경남도, "전국근로자여러분! 경남에 할인받고 놀러오세요!"

### 근로자 휴가샵 전용몰에서 경남 여행상품 구매 시, 최대 3만 원 할인

경남도도와 경남관광재단은 7월 31일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휴가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휴가객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경남여행상품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수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근로자휴가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용 온라인 쇼핑몰(베네피아 운영)에서 경남 숙박, 여행상품 등을 구매 시 50% 할인, 최대 3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휴가지지원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추진되는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



으로 전용몰을 통해 국내 여행상품 구매할 수 있다. 휴가샵 내 경남 여행상품은 숙박, 여행 패키지상품, 교통 등 여행 필수요소 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체인호텔과

리조트, 펜션 예약, KTX와 렌터카 등 단일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또 패키지 전문 여행사에서 구성된 '경상남도 기차여행', '내 차로 경남 자유여행' 등 각자의 여행 취향에 맞는 여행패키지

상품도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7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베네피아 휴가샵 내 경남 여행상품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남 여행상품 전용 웹페이지에서는 경남도가 추천한 여름철 여행지 15곳도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숙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에게 다양한 관광지 체험이 준비된 경남 여행을 추천한다"라며, "이번 할인행사를 계기로 올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바다·산·강·축제 등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경남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두 경남관광재단 사무국장은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번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정부의 한국관광 및 내수활성화 정책 이행과 동시에 여름 휴가객 유치 증대를 통해 경남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원기자

### 서울라이트 DDP, '레드닷 2023'에서 국내 빛 축제 중 유일하게 '본상' 수상 쾌거

DDP의 비정형 외벽을 이용한 222M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전시인 '서울라이트 DDP'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서울라이트는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외관을 활용해 해마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시민 감동형 미디어 축제로 현장 관람 인원만 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엔자임, 팀헬로맨, 임태규, 스티키몬스터랩,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 등 예술, 디자인, 기술 분야에서 실력이 증명된 예술가와 협업하며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를 선보였으며 코로나 기간에도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시민 만족도 97%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빛의 축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라이트 DDP'의 이번 수상은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며 완성도 높은 미디어 콘텐츠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 대회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 3개 분야에서 해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린다.

또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 전시를 선보인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미구엘 슈발리에(Miguel Chevalier)'와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가 각각 'Digital Nature'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새로운 자연 신작을 공개한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전시 개최 이래 최초로 가을과 겨울, 2회에 걸쳐 '서울라이트 DDP' 전시를 개최하며 DDP의 222M 외벽 전체 면을 수놓을 예정이며 겨울 행사에는 새해 카운트다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 이경준 대표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은 작품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DDP가 미래형 미디어아트를 위한 최적의 캔버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품격있는 디자인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8월 1일 속초해변에서 '포레스트댄스 챌린지'개최

주제곡 활용 플래시몹 퍼포먼스, 퀴즈 이벤트 등 D-50 맞아 시민 참여 붐업 행사 진행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D-50일을 기념하여 8월 1일 오후 4시부터 속초해수욕장 광장에서 "포레스트댄스 챌린지" 활성화(붐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포레스트 댄스챌린지"는 여름 휴가철 바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9월에 개최하는 산림엑스포 행사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활성화(붐업) 행사로 다양한 홍보 이벤트로 진행된다.

먼저 산림엑스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품을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 룰렛, 림보 게임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식 주제가를 활용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플래시몹 퍼포먼스는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흠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일 속초해수욕장 광장에 산림엑스포 주제곡이 울려나오면 어린이 댄서가 등장하여 춤을 추기 시작하고, 이어서 전문 댄서들이 하나둘 등장하여 다 함께 춤을 추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아이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제곡 댄스영상을 상영하고 속초아이대 관람차 티켓과 산림엑스포 입장권 경품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분위기를 한껏



펼쳐올릴 계획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전진표 사무처장은 "D-50일 기념하여 휴가철 관광객이 많은 속초해수욕장에서 활성화(붐업)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50일 앞으로 다가온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올해 가을 절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부터 온라인 포레스트댄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행사 주제곡인 "숲으로 가자"의 기존 안무를 커버 또는 새로 창작한 댄스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이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8월 20일까지 진행하며, 대상 1팀에게는 50만원 상품권, 은상 1팀에게는 30만원 상품권, 동상 1팀에게는 20만원 상품권, 참가상 6개 팀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동원기자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폭염 탈출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폭염 대응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를 진행하며 ▲폭염 콘텐츠 체험 사회관계망(SNS) 인증 ▲폭염 관련 퀴즈 ▲야간 특별체험 '야(夜)행성' ▲야외 음악회 개최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폭염 체험장 자율관람 인증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에 등록하면 확인 후 쿠폰을 끊어 당첨된 기념품을 받으면 된다.

폭염 관련 퀴즈는 폭염 체험장 정보QR(QR코드)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 퀴즈를 게시하고 정답자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야(夜)행성 이벤트는 8월 1, 3, 8, 10, 16, 17, 22, 24일 총 8일간 2회씩 야간에 지하철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을 예약하고 체험할 수 있다.

야외 음악회 클래식 공연은 폭염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는 야외 분수광장에서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16:00에 만나볼 수 있으며,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한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예약 없이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폭염체험장'은 ▲폭염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사전 교육장'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실내 체험장' ▲스마트 그늘막과 안개형 냉각수(쿨링 포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형국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아 이색 피서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홍천군, 제27회 홍천찰옥수수축제, 성공적 마무리



홍천군의 대표축제 '제27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3일간 역대 최대 방문객과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홍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홍천찰옥수수축제는 지역 5개 농협과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옥수수를 선보였고 지역 생산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농산물과 먹거리 등이 마련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3일간 총 7,600여 대의 차량이 행사장에 진입했으며 3만 8,000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찰옥수수 매출액은 1억2,000여만원, 농특산물 7,000만원, 그 외 음식점과 먹거리부스 등을 포함하면 총 3억원 이상의 매

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를 비롯해 풍물놀이, 재즈 밴드, 민요 및 무용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이어졌으며 옥수수 팽리먹기, 옥수수 낚시, 방문객들이 즉석에서 참여하는 자전거발전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알찬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1일 9회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축제기간 동안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에 무더위쉼터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배려했다.

이세나기자

### 장흥 물축제 '워터樂 폴파티'의 뜨거운 인기

물축제 핵심 야간 프로그램 워터樂 폴파티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야간 핵심프로그램인 '워터樂 폴파티'가 30일 첫 선을 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워터樂 폴파티는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물축제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폴파티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이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30일 첫 무대에는 흥륙기, 수라, 라나 등 유명 DJ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장흥군은 더 화려해진 무대와 조명, 스크린, 미니 풀 등을 갖춘 공연장을 마련해 파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물축제 기간 중 총 3번에 걸쳐 열리는 폴파티는 오는 8월 4일과 5일 밤 9시에 다시 열린다.

주중 물축제의 밤은 별밤 수다(水多)쟁이가 책임진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레트로를 현대 감성으로 재현한 별밤 수다쟁이는 재즈밴드 리페이지, 주권기, DJ 박규상 등이 출연을 예약하고 있다.

8월 2일 방송사 축하공연에는 이찬원, 진시몬, 박해신, 8월 3일 '물만난 콘서트'에는 장윤정, 박서진, 현당 등 국내 정상급의 트로트 가수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 간 장흥군 탐

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재원/기자

23.08.01 ~ 23.08.27

- 01 폭염 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겨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다양한 체험장을 마음껏 즐겨요
- 02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세요!  
체험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의 SNS에 올리세요
- 03 쿠폰을 발급 받고 기념품을 받아주세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쿠폰을 발급 받고 스크린에서 쿠폰을 기념품으로 바꿔주세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DAEGU SAFETY THEME PARK

퀀텀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체 ▶ 중요사안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안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 원활한 인력수급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li> <li>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li> <li>  삼성전자 - 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li> </ul>
우수인력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단, 제2국가산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항만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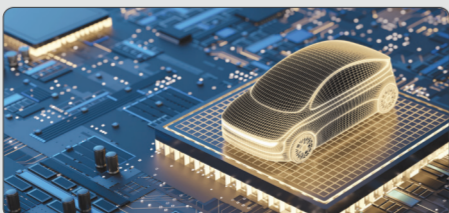
###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 SKT컨소시엄 협업 UAM 기반 구축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 기업이 몰려드는 자율주행산업 허브 구축



### 반도체

- 첨단센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조성
- D-FAB 센서 파운드리 구축
-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DGIST 센소리움연구소 설립·운영)



### 로봇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서비스로봇 실증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전주기 (데이터수집·중개, 개발·실증, 판로개척) 지원
- 의료산업 사업화(판로개척) 중점 지원
- 디지털 치과클러스터 구축 및 디지털치료제 육성



###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 ABB성장펀드 운영

